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개소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협력 해외 첫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통합 거점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SVC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벤처캐피탈(VC)이 함께 입주하는 해외 첫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다.

SVC에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 VC가 공동 입주해, 우리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빅테크, 투자자가 밀집한 실리콘밸리를 거점으로 현지 진출, 투자 연계, 네트워킹을 한곳에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SVC 개소를 위해 지난 2년간 민간 전문가와 지원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향을 마련하고, 아산나눔재단,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 민간 기업·기관과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 협력을 준비해 왔다.

SVC에서는 입주 기관이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함께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외부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년 200개 이상의 국내 스타트업과 VC를 대상으로 미국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기 진출 기업과 단기 출장 기업을 위한 업무 공간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관,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입주 지원기관 관계자, 아산나눔재단·네이버·현대차 관계자 등 국내외 기업인과 투자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주 지원기관 간 협약을 비롯해, 지원기관과 아산나눔재단·네이버·현대차 간 협력 양해각서(MOU), 한국벤처투자와 네이버 간 공동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협력 MOU도 체결됐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 연계를 강화하는 민관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

실리콘밸리 SVC는 그동안 분산 운영돼 온 중기부 해외 거점(KSC, GBC 등)을 처음으로 통합한 사례이자, 국내 17곳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해외에 설치한 첫 사례다. 중기부는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일본과 싱가포르 등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SVC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관은 SVC 개소식 이후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한국의 벤처 정책을 소개하고, 미국 내 한인 창업자 네트워크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 차관은 "AI와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세계 경제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며 "SVC를 중심으로 한인 창업자 커뮤니티와 협력해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젓소 한국형 보증씨수소 3두 선발

농촌진흥청, '슈페리얼·스누피·포텐셜' 3월부터 정액 공급

국내 낙농 환경에 적합한 젓소 개량을 이끌 한국형 보증씨수소 3마리가 새롭게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5년 하반기 젓소 한국형 보증씨수소로 '슈페리얼(H-1048)', '스누피(H-1058)', '포텐셜(H-1077)' 3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씨수소의 정액은 오는 3월부터 농협경제지주 젓소개량사업소를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슈페리얼

한국형 보증씨수소는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씨수소로, 우리나라 사육 환경과 기후 조건에서 우수한 생산성과 체형 능력이 검증된 개체다.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젓소개량사업소, 한국중

속개량협회가 협력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박병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 평가과장은 "농가에서는 젓소개량 사업이나 한국중속개량협회를 통해 보유 암소의 유전능력을 확인한 뒤, 사육 여건과 개량 목표를 맞는 한국형 보증씨수소 정액을 선택해 체계적인 개량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소비자 부담 낮추고 농가 소득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축산물 유통 전반의 비효율을 줄여 소비자 가격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한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주요 축산물의 유통 구조와 거래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 유통은 도축과 가공, 판매 구조가 선진화됐지만, 일부 비효

율적인 유통 단계와 사육·거래 관행으로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통 비용 절감과 가격 투명성 강화로, 정부는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우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협 공판장에서의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

로 확대한다. 또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가 완공되는 2028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판매와 군납 등 분산 유통 기능을 통합해 유통비용을 최대 10%까지 절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기고기'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직거래를 확대한다. 한우 사육 기간도 기존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사료비 등 생산비를 낮추고, 단기 비육 한우 브랜드를 활용한 상시 유통체계도 구축한다.

돼지고기는 거래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 수를 확대하고, 온라인 경매를 포함해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닭고기는 소비 형태 변화를 반영해 생닭 가격 대신 부육용 가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조사를 바꾼다.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불량 기준으로 기중 평균에 가격 왜곡을 줄인다.

정부는 소·돼지의 원격 상장과 부육용 온라인 경매를 확대하고, 계란도 온라인 도매 거래를 늘릴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 디지털 경쟁력 높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디지털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2030 KBIZ 디지털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중앙회는 이번 전략의 비전으로 'DATA로 연결하고 AI로 실현하는 2030 KBIZ'를 제시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다. 비전에 담긴 '2030'은 2026~2030년 5개년 계획을 뜻하는 동시에, 민첩하고 창의적인 2030세대의 이미지를 함께 담고 있다.

전략 목표는 단계적으로 설정됐다. 단기적으로는 '지식이 연결되는 조

직', 중기적으로는 'AI가 업무 파트너가 되는 조직', 장기적으로는 'AI(인공지능 전환) 생태계의 중심 조직'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미래형 업무 환경 기반 AI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DX 촉진 △지능형 위협 대응 중심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데이터 통합 기반 가치 창출 △미래지향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조직 역량 확보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14개 전략과제와 33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 활용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구축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데이터·인프라·서비스·거버넌스 등 디지털 전 영역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경진원-한국기후환경원-케이에스씨,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전북경진원)이 기후 대응 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

력 확대한다.

전북경진원은 14일 (사)한국기후환경원, 전북 중소기업인 (주)케이에스씨(KSC)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 및 척박지 녹화 사업을 위한 전북형 그린 ODA 협력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농기계 보급이나 교육·시설 구축 등 대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돼 소수 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던 ODA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기후 대응 제품과 솔루션을 ODA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원은 케이에스씨가 보유한 물 부족·사막화 환경에서도 수분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생장물을 높이는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이를 ODA 사업과 결합한 새로운 수출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농기계·대형 인프라 중심 ODA에서 벗어나 기후 소재품 중심의 중소기업 참여형 ODA로 외연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오상근 기자

농식품 모태펀드, 신산업 투자 확대

농식품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신산업 중심의 투자를 한층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고 20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지난해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 원 규모로 결성되며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 2,470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농식품 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 기반 농식품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인재의 산업 유입, 지역 기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14일 (사)한국기후환경원, 전북 중소기업인 (주)케이에스씨(KSC)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 및 척박지 녹화 사업을 위한 전북형 그린 ODA 협력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지역 인재 19명 신규 채용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환)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최근 전북 지역 출신 인재 19명을 신규 채용하고, 지난 12일 전북본부에서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신규 직원 19명은 앞으로 한 달간의 교육 연수를 거친 뒤, 전북 도내 농협은행 영



업점에 배치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